

# 韓國基督教와 그 民族教會 成立

閔 庚 培\*

- |                         |                          |
|-------------------------|--------------------------|
| I. 序 論                  | IV) 偶像破壞의 潜在力            |
| II. 民族教會로서의 形成過程        | V) 全國的인 自發的 民族組織體로서의 教會  |
| I) 그 宣敎狀況의 特殊性          | IV. 狀況突破의 이데올로기; 信仰의 外延力 |
| II) 民族教會形成의  몇 經路들      | V. 解放後의 基督敎會             |
| III. 捕囚民族解放의  메시아主義     | VI. 結 言                  |
| I) 近代的 國民國家形成의 巨大한 에너지  |                          |
| II) 基督敎에의 轉向 및 入敎의 動機問題 |                          |
| III) 近代的 責任市民層의 形成      |                          |

## I. 序 論

한국교회사 百年을 보는데 있어서 최근 두 가지의 커다란 誤謬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한국교회사를 民衆의 歷史로 보려고 하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朝鮮末의 權力體制에서 소외된 농민층의 저항이었던 東學革命의 계승운동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日帝의 統治라는 體制下에서의 교회의 역사가 길어서, 역시 그 疏外의 이미지 전환이 쉬웠고 따라서 모름지기 그 역사를 하나의 저항 패턴으로 範疇化하려고 하는 위험에 노출되기가 쉬웠던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도 그 狀況構成이 유사하다고 하여 한국 기독교의 사명과 歷史를 이 民衆抵抗의 限界에서만 값 있다고 보는 견해의 유행을 우리는 悲嘆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추세는 基督敎史를 東學史의 補完으로 보려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民衆抵抗力 結束의 한 에너지에 기독교가 오히려 動員된다는, 主客轉倒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마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 기독교는 저항적 民族主義의 한 類型 속에 정지해 버리고 말거나, 아니면 아나키적인 敵對意識의 기폭제로 轉用되는 비극적 모순을 들어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계통의 人士들을 제임스 콘의 《解放의 神學》을 많이 言謂하는 層의 기독교자들로서 白人 黑人の 2백년에 걸친 비참한 갈등과 白人의 범죄를, 그러한 狀況과는 無關한 韓國 속에 그대로 投影함으로써 한 겨레안의 분기적 문제를 그만한 악의 구조만

\* 延世大學校 敎授

큼 확대하여 도전하려는 방향 착오의 誤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所重한 教會史 百年이 이러한 憎惡과 人間中心的, 特殊階層中心的 發想의 광열에 의해서 추호도 오염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우리 것을 보존하겠노라는 다짐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다른 하나의 잘못된 견해는 근대주의적 新神學者들의 입장에 나타나 있다.

이들은 韓國教會 傳統의 信仰이 保守主義라는 사실, 그리고 敬虔主義의 正統主義라는 점을 오히려 강조한다. 까닭은 그들만의 다른 目的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目的이란 이런 것이다. 곧 이들 近代主義的 新神學者들은 소위 <朝鮮的 神學>의 수립을 言謂하면서, 神社參拜 저항으로 教會가 닫히고 平壤神學校가 閉鎖되던 때, 그리고 수 없는 殉教者들이 피를 흘리는, 바로 그 現場에서 朝鮮神學校를 京城市에 세우면서, 그 以前의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사수에 돌아났으니 한국교회가 아니었다고 단언하고, 한국교회사 그 以前全部를 <不在>로 처리해 버렸던 것이다.<sup>1)</sup> 그리고 이 단절된 교회사의 새 시작을 다짐하면서 그 主役으로 자처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教皇無誤說 論爭中, 추기경 맨닝(Cardinal Manning)이 하였던 저 惡名의 말을 여기서 다시 듣는 듯 하였다. 맨닝은 말하기를 <敎理는 歷史(的 事實)를 克服해야 한다><sup>2)</sup> 고 했던 것이다. 역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 로마 카토릭의 추기경만이 아니었다.

우리 韓國教會史 百年은 하나님의 歷史요, 그 백성들의 歷史이다. 그것은 저기 있어서 우리들에게 救援과 攝理, 사랑과 十字架를 가르치고 指示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있지, 우리의 先行된 이데오로거나 運動의 保證用으로 씌워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겨레의 구원을 위해 하신 役事를 살피고, 다른 한편 이 教會가 民族宣敎의 正途를 걸어 온 형극의 길을 살펴야 하리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의 所重한 역사로 그 가치를 아끼고 보존해야 할 것이다.

## II. 民族教會로서의 形成過程

### I) 그 宣敎狀況의 特殊性

歐美 諸基督敎國들의 近代宣敎가 植民의 帝國主義의 砲艦과 함께 進行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動機의 不純性이나 帝國主義와의 가능한 접속 기피를 진력하였다 할지라도 宣敎侵透의 길이 西歐의 힘의 배경없이는 불가능하였고, 심지어 그 힘의 攝理의 次元까지 명상되면서, 그 결정적 단절은 용이하지가 않았다.<sup>3)</sup>

1) 金在俊, 韓國神學大學의 歷史的位置, 韓國神學大學報, 第三輯, 1957. p. 5

2) J.S. Whale, The Protestant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 253에서

3) A. Williamson, Journeys in North China, Manchuria, and Eastern Mongolia; with some Account of Corea, London, Smith Elder & Co., 1870. Vol. II, p. 131.



그러나 極東의 三國, 곧 韓國과 日本 및 中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事情이 달랐다. 日本과 中國은 宣敎를 직접 西歐에서 받았으나 植民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였고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植民的 帝國主義가 오히려 日本이었고, 基督教은 이 侵略 日本에 대한 저항적 민족 에너지와 결탁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특수성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한국에서 이 日帝의 植民勢力에 대한 民族的 同一性의 보존 층동에 同盟하는 형식으로 土着化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韓國基督教의 歷史的 發展은 1876年이나 1885年과 같은 宣敎着手의 時間과는 관계없이, 이 日帝의 침략적 본체가 노출되고, 거기 따라서 民族의 無力感이 痛感되던 1895年을 전환점으로 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意味를 가지게 된다. 韓國教會의 外形的 成長史를 分析的으로 연구한, 로이 쉬이어(Roy E. Sheare)는 <1895년부터 세례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단언하면서, <교회는 선교사들보다 앞장서><sup>4)</sup> 宣敎를 하였다는 말을 남기고 있었다. 여기 1895년이란 사실과 함께, 韓國基督敎의 主體的 信仰活動이란 사실이 注目을 끈다. 이제 그 具體的 經路를 살펴 보자.

## II) 民族教會形成의 몇 經路들

우선 東學徒들의 움직임 속에서 問題의 실마리를 포착할 수 있겠다. 東學農民戰爭은 그 第一期(1894. 5)에 있어서는 反封建투쟁이었으나 그 第二期(1895. 10—)는 抗日救國투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 抗日의 기치는 1894년 음력 11월에 낸 《告示 京軍與營兵而敎示民》에 이미 그 움이 터질 듯 보이고 있었다.

도전스랄기리라도 도는 다르느 斥倭와 斥華는 그 의가 일반이라……도전으로 倭國이 되지 안이케 하고 동심합력하여 더스를 이루게 하올서라.

이것은 이들에게서 斥洋의 글귀가 빠진 것 이상의 深遠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京軍等에게 보낸 것이었지만 <道는 다르나>라든가, 斥倭에서의 결속을 다짐한 것이 基督教을 의식했다 해서 短見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을 立證할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곧 1894년 9월부터 黃海道 西北地方에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가 직접 목격하고 쓴 보고서 속에서 필요한 것만 발췌해 본다. 그것은 日本軍이 東學農民軍들을 뒤쫓을 때의 이야기이다.

일본의 작은 포함이 부락 가까이 나타나서…부락민들은 모여 들어 선교사의 집문 앞에 기독교의 旗를 내어 달겠다고 하였다. 信仰을 가릴 것 없이 반란자나 충성된 자거나 그 것대를 다는 것을 모두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十字架가 그려진 것이었다. ……부락민들은 이 부락에 대한 일본군의 침범을 내가 막아 준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았다. ……

많은 수의 叛徒(東學徒)가 와서 기독교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目的은 外國人

4) 徐明源(Roy. E. Shearer), 韓國教會成長史, 이승익 譯 大韓基督教書會 1966. pp. 53, 54

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때문이었다. 地方官吏도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sup>5)</sup>

理論的인 것은 여하하든지, 東學徒들이 西洋宣教師들에게 同情과 救援을 실제로 기대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증언이 여기 있다. 이 선교사는 이들 入教動機의 순수성을 문제 삼기는 하였지만, 문제의 분석을 東學軍쪽에서 한다면 단순한 피난처로서 回心만이 아닌 어떤 情緒的 轉向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고, 아울러 東學이 基督教 속에서 그때까지는 개념화가 뚜렷하지 못했던 어떤 民族的 抗日 에너지의 접속 斷面을 발견했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基督教이 民族的 기상으로 굳어진 모습을 이들이 보았다면, 실제로 그런 전환점을 기독교는 언제 겪었던가. 우리는 그것이 淸日戰爭과 乙未事變을 겪으면서 진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자료들을 몇 가지고 있다. 佐翁 尹致昊(1865—1945)는 淸日戰爭이 끝날 때 參議로 있다가 그 해 7월에는 外務協辦에 영전되고 있었다. 그가 남긴 日記를 통해서 이 점을 추적해 보자.<sup>7)</sup>

閔妃弒害는 1895年 10月 8日 새벽에 日本浪人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그런데 이 弒害가 몇 가지 重大한 사실을 露出시켜 주는 구실을 하였다. 그 하나는 日帝가 이제 朝鮮에 대해서 侵略의 야욕을 가졌다는 사실의 露露이었다. 이와 同時에 兪吉濬이나 金弘集을 비롯한 開化派의 親日系가 들어 났다는 사실이요, 이들은 閔妃의 惡政을 들어 그 不幸을 당연하게 보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儒臣系의 金允植 역시 閔妃弒殺을 일단 환영하는 눈치가 보였다.<sup>8)</sup> 그리고 또한 美英蘇의 公使館에서도 이 비극의 가능한 接近을 지각하고 閔妃의 피난을 선교사가 알선함이 어떠냐고 권고했을 때, 日本을 꺼려 방관 무심하였다는 非情이었다.<sup>9)</sup>

반면에 尹致昊를 비롯한 몇몇 기독교인들과 언더우드(H.G. Underwood)를 중심한 宣教師들은 忠君의이고, 따라서 閔妃의 참살에 견딜 수 없는 비탄을 느껴, 나라의 위기를 느끼다가, 필경, 春生門을 통해 國王을 피신케 하려던 일을 企圖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佐翁은 결국 이 모든 狀況의 進行을 보다가, 朝鮮은 閔妃의 피때문에 日本과는 <건너 뚫 수 없는 深淵><sup>10)</sup>을 그 사이에 가지게 되었다고 피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모살을 계획한 장본인인 竹添進一郎는 儒教人이고 三浦梧樓는 佛敎人임을 指目하여, 은근히 基督教은 忠君의이며

5) 한우근, 동학농민반기, 교양국사총서 19,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6, pp. 262~3에서 引用.

6) 이런 일이 있고나서 12년이 지나 天道敎主 孫秉熙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곧 <我國宗敎가 眞經 耶穌敎가 될터이니 吾儕는 不可不 耶穌敎를 信從然後에 乃有進就之望이라>. 그리고 그 敎徒一人이 耶穌敎人을 만나 <耶穌敎의 原因을 採問> 하더라는 報도가 있었다. 大韓每日申報, 1907年 6月 28日字, <自東向西>, 雜報란.

7) 佐翁은 國內에 있을 때도 이미 언더우드와 친숙하였으나 1885年 4月 3일에 22歲 때에, 中國 上海에서 監理敎人으로 被洗.

8) 尹致昊日記, 國史編纂委員會, 1975, Vol. 4, pp. 71, 103

9) Ibid., p. 107

10) Ibid., p. 101

愛國의이라는 사실을 示唆하려 하였다.<sup>11)</sup>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東學이 <斥洋>의 표방을 止揚했음이 확실하고, 서러움과 비탄 속에서 나라와 겨레를 지킬 수 있는 일관된 素望이 필경 基督教로의 전향을 자극하여 저 폭발적 증가의 신비로운 현상을 설명해 준다고 본다. 이 때 <겨레>와 <나>와의 同質의 連續感이 아주 具體的으로 진행되었고, 나라 없으면 나 없고, 나 없으면 나라 없다는, 전혀 새로운 근대적 의식이 굳혀진 사실을 추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韓國初代教會의 信仰은 靈의 순례를 겪어 가면서 宗教的 回心에 이른다는 經路는 거의 없었고, 대개 이 民族의 試練의 위기에 個人과 民族과 同一性 保存이라는 충동과 자극에 의해서 動員된 현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韓國教會의 傳統에 民族教會的 構造는 이래서 그 첫날부터의 個性으로 그 색채가 굳혀진 셈이고, 그 變轉은 장차 결코 쉽지 않다는 展望이다.

이런 意味에서 이 教勢確保의 현상은 自己와 民族의 現實的解放을 追求하는 그치지 않는 願望의 좌절된 表現이라 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局面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 Ⅲ. 捕囚民族解放의 메시아主義

#### Ⅰ) 近代的 國民國家形成의 巨大한 에너지

1895년을 경과 하면서 朝鮮의 基督教는 國民的 自覺을 촉구하고 開化의 進行을 촉진하기 시작하였다. 1896年 8月 20日字의 《독립신문》 논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실리고 있었다. 곧 예수교가 다만 바라는 것은,

불상훈 조선백성들……국중에 울흔 법률이 성기고 조선에 잇는 대소 인민이 흠심 하여 나라를 보존 하고 인민이 정돈이 되야 규모가 잇게 만스를 힘하며 상인 힘물지심이 업서지고 전국 인민이 서로 성가하기를 형태와 갖치 하며, 구세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그 성주의 마르치심을 본 밧으라 흠이니…<sup>12)</sup>

信仰을 통해서 保國開化하는 길이 열린다는 확신은 그때 편만해 있었다. 가령 《독일신문》에 이런 글이 1898년에 실려 있었다.

오늘날 문명기화라 주주독립이라 호는것시 다 이 교(耶穌教)속에서 나온 말이오. ……그럼으로 사름 마다 예수교만 실노히 밧을 디경이면 군신과 부조와 부부와 장유와 봉우사이에 의리와 정의가 잇서 일국이 티화세계가 될터이니 우리 나라 동포들은 힘써 예비당을 차져가서 견도호는 말도 조세히 듯고 성경도 만히 보아 모두 진정으로 밧는 교우들이 되어서 나라홀 영미국과 조치 문명부강케 만들기를 우리는 진실노 바라노라.<sup>13)</sup>

11) Ibid., p. 83

12) 독립신문, 데일권 오십구호, (1896. 8. 20) 논설.

13) 독일신문, 데일권. 사십삼호, (1898. 5. 28) 논설(二).

하지만 基督教은 自主的인 文明國의 形成을 淸성해 나가면서 아울러 天賦 人權論과 民權思想을 높은 次元에서 樹立하여 나갔다. 1899年의 《독립신문》을 다시 열람한다.

하느님이 세상만물을 내신 세에 사람의게 자유하는 권리를 주시고 만물을 임의로 다스리며 일용 산업에 취하여 쓰게 하셨스니, 하느님의 도를 존경하는 사람이라야 뵈히 자유의 권리를 남의게 빼기지 아닐 것이오, 사람마다 자유의 권을 닦지 아니하면 나라이 반다시 주주 권세가 단단홀지라. ……브라컨더 나라의 근본을 힘 쓰시오.<sup>14)</sup>

基督教信仰이 있는 곳에 天賦의 自由權이 附與되고, 自由있는 곳에 國家의 自主가 보장된다는 신앙, 그것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確信이었다. 이러한 意識은 1905년에 이르면서 점점 강한 展開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乙巳保護條約締結의 짙은 구름이 뒤덮던 날, 곧 1905年 10월에 《大韓每日申報》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耶蘇新敎가 出호야 平等과 自由의 主義를 倡論호니……

大抵邦國은 人民之積이라 人民이 有自立之權然右에 邦國이 亦有自立之權이니 人民의 知識이 發達치 못호면 엇지 自立之權이 有호리오……明明上天이 一視同仁호사 生命과 自由의 權利를 世界人民의게 各各 畀與호시니 此는 自己가 棄호려 아니오 他人이 또호 奪치 못호者어늘 彼他人이 此權利를 侵奪호은 곳 自己가 拋棄호 緣故라.

唯獨 大韓人民은 엇지 上天의 畀與호신 權利를 不得호얏스리오. 神聖호 宗教中에 平等과 自由主義를 體念勿失호야 天賦호신 固有權을 各其克復호면 國家의 自立之權을 維持키 不難호리니 一般人民은 念之勉호라.<sup>15)</sup>

한데 保護條約은 맺어졌고, 따라서 <國家의 沈淪滅亡之境에 陷入>함에 悲悼感傷해서 罪의 告白이라는 깊은 信仰의 경지에 인도되지만 역시 나라에 대한 獨立保存의 희망은 더욱 굳혀져 갔을 뿐이었다. 이제 基督者 屢十萬에 달한 것으로 보도된 1905年 11月 全國의 長老敎와 監理敎 및 浸禮敎는 聯合해서 爲國祈禱會를 연일 개최하였는데 그 때의 祈禱文이 아직 우리들 손에 傳受되고 있다. 그 글 속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萬王의 王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韓國이 罪惡으로 沈淪에 드렸스며 오직 하나님밧게 빌던 업사와 우리가 一時에 祈禱호오니……韓國을 救援호사 全國人民으로 自己罪를 悔改호고 다 天國百姓이 되어, 나라이 하나님의 永遠한 保護를 밧아 地球上에 獨立國이 確實케 하야 主심을 耶穌의 일흠으로 비유나이다.<sup>16)</sup>

이러한 기도회의 消息에 대해서 《大韓每日申報》는 12月 1日字 論說 <信敎自強>에서 宗教社會가 形成하는 <無形之強>을 論及하며, 그것이 바로 <大韓에 獨立根基>라고 단언하며, 그 効力이 <不出幾年에 必有可觀이라><sup>17)</sup> 展望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無形之強>의 信仰, 그

14) 독립신문 제4권, 제二百八호(1899.9.12), 나라의 근본(논설).

15) 大韓每日申報, 光武九年(1905) 10月 11日, 雜報, 宗教改革이 爲政治改革之原因.

16) 大韓每日申報, 光武九年(1905) 11月 19日, 雜報, 聲聞干天.

17) Ibid., 12月 1日字, 論說, 信敎自強.

것이야 말로 〈自國의 宗教와 歷史를 能히 保全하며 獨立精神이 不至全滅하고 甞경 國權을 恢復〉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信仰의 構造力은 강렬한 忠君愛國의 에너지를 同伴하였다. 1896年 〈달성〉 예수교회당 교인들이 지은 〈애국가〉의 二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하나님의 성심기도 국티평과 민안락을 님군봉축 정부사랑 학도 병정 순검사랑 사람마다 이즈뵈어 공평명직 힘을 쓰오·륙신세상 잇슬세에 국티평이 데일조타 국기잡고 밍세하야 대군주의 덕을 돕세.<sup>18)</sup>

이런 유형의 애국가는 수 없이 많았고, 더구나 1905年 編纂 尹致昊의 《찬미가》 속에는 愛國頌과 皇帝頌이 실로 반수 가량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한데 基督者들의 애국적 열심은 決死的인 熱血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1894年 4月 서울의 獨立協會에서 상소와 연설로 의리에 죽기로 동맹한 소식을 들은 평양의 예수교인들이 〈우리도 빅성이 되어 이러한 충의있는 일에 었지 수수방관만 하리오. 서울 사람들이 울흔 일과 중결만 가지고 죽을 것 뵈르면 우리도 그 뒤를 좃차 훌쩍 죽음이 비성된 죽분의 맛당하다〉<sup>19)</sup>고 결의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 해 3月 29日의 《독립신문》에도 이 獨立協會의 決死的 투쟁에 호응하기 위한 仁川 용동 교회의 다짐이 보도된 일이 있었다. 〈우리 회원들도 귀회원들의 결단한 마음을 사랑하야 뵈치 죽가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들의 결의였다. 1965年 보호조약 체결때 閔泳煥이 自決하자 11月 30日 예수교인 金河苑, 李基範, 車炳修, 金弘殖 등이 死守國權을 쓴 경고문을 들고 종로 베키리에서 痛烈한 救國演說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日警의 칼을 무릅쓰고 〈國家獨立을 위하여 죽는 것이 我的 榮光이니 快速殺我〉라고 대들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일도 있었다.<sup>20)</sup>

## II) 基督教에의 轉向 및 入教의 動機問題

1895年과 1905年을 두 頂點으로 한 基督教에의 대거 入教의 動機를 韓日側 文獻에서 살펴 보면, 그것은 대개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나라의 自主獨立, 이 두 범위로 잡을 수 있는데 한결같이 〈依賴方處〉의 無力感이 그 動機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899年 8月의 《독립신문》에 의하면, 〈민정 가궁〉이라 해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셔도 관장들은 허 더방 빅성의 성명과 저산을 엇더케 보호들 하야 주는지 그 더방빅성들의 말이 관장의 보호를 밋다가는 큰 랑피를 보겟스니 다시는 관장을 밋지 말고 외국교에나 들어서 각기 성명과

18) 대도선 달성회당 예수교인등 애국가, 독립신문, 1896年 7月 23日字 게재.

19) 협성회보, 1898年 4月 2日字

20) 大韓每日申報, 1905年 12月 2日字.

鄭喬, 大韓秀年史, 下. p. 91

저산을 보호 받게 하자 하고.....<sup>21)</sup>

이러다가 1905년에 이르면서 교인들이 <구름뚝치><sup>22)</sup> 모여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大韓每日申報》는 이들의 轉向動機를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었다. 곧,

近日 漢城內外 人民들이 國事日非와 外侮日甚함을 目擊하고 依賴無處하야 自然 憂懼心을 難堪키로 耶穌敎에 投入하노는 者 每日 五十名以上이라 흔즉 若此不日하면 不幾年에 八域人民이 大半이나 教徒될 이라더라.<sup>23)</sup>

그런데 같은 해 9월 29日字에 가서 同紙는 轉向의 二期를 구별하여, 그 第一期에는 <下等人民이 官吏의 侵漁를 不堪하야 敎會를 依賴>했다고 하고, 그 第二期에는 青年有志와 熱血有爲之才가 <外人의 虐待가 非常함으로 敎會를 依歸>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第二期에 이르러 愛國心과 同胞相愛의 團體力이 特然自立한 것으로 分析하였다. 여기 民族解放과 保存의 메시아主義가 그 거대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한데 선교사들도 이와 비슷한 分析을 내리고 있었다. 기독교를 찾는 사람 중에는 그 중요 동기가 보호와 힘의 획득인 경우가 많다.<sup>24)</sup> 이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다. 그것을 不純으로 指目하는 자세가 여기 역역히 보인다. 이와 동일한 해석을 日帝도 내리고 있었다. 곧

入敎의 動機는 大概 其 勢力을 憑藉하여 權威者에게 對抗코져 함에 있거나, 或은 官吏의 誅求를 免코자 함에 있어서 千差萬別이라 하나.....宣敎師<sup>25)</sup>들은 朝鮮이 將來 日本에 併合되리라는 口實으로써 其 災厄을 免코자 慾하면 耶穌敎에 入하야 其保護를 受함에 不如하다고 巧妙히 排日的 言動을 하여...此說이 痛切히 朝鮮人의 歡迎하는 바 되었다.<sup>26)</sup>

사방을 둘러 보아도 依賴할 곳 없었던 歷史의 現場에 基督教은 이처럼 國權과 人權, 그리고 基本的 生存權의 唯一한 지탱자, 그 방파제로 巨大한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우리 民族史 속에 土着化해 가고 있었다.

### Ⅲ) 近代의 責任市民層의 形成

基督教은 朝鮮의 危機에 導入되면서 受容되었기 때문에, 告白의 主體的 信仰의 결단을 거친 사람들에게서 信仰되었다는 다른 하나의 特性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意識分子 形成의 과정이 여기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한 信仰에 神賦人權의 궁지와 人間에 대한 탄탄서 언지

21) 독립신문, 1899年 8월 12日字

22) 大韓每日申報, 1905年 2월 13日字.

23) Ibid., 8월 30日字.

24) C.C. Sharp, Motives of Looking Christ, K.M.F., Vol. II. No. 10(1906. 8) p. 182

25) 여기서 이 말은 반드시 外國人을 意味하지 않는다. 가령 初期 諸韓國新聞에도 基督教傳道人들을 宣敎師라 칭한 경우가 많았다.

26) 朝鮮現時에 있어서의 地方人心狀況, 記錄, 1909年. 韓國獨立運動史, 國史編纂委員會, I. 1970. p. 963

못한 보람, 한 民族으로서의 自尊이 움츠을 수 있었다. 가령 《독립신문》에 나타난 글이 그 近況을 설명 해 줄 것이다. 곧

크리스도교 하는 빅성은 교 아니 하는 빅성보다 마음이 강하고 용됨이 잇서 죽는 것은 두려워 아니 하는 의리가 성기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를 참으로 믿기드면 언제든지 울코 공변되고 의리 잇는 일을 하거드면 하늘님이 보아 주시는 것을 믿는 연고요, 설령 울혼 일을 하다가 죽드려도 영혼을 하늘님이 영성불멸 하는 복음을 주실 것을 믿는연고라.<sup>27)</sup>

윤리적 판단력이나 攝理的 信仰의 經世的 希望같은 것들은 실로 基督教이 근대 朝鮮人에게 줄 수 있었던 강력한 새 價値의 비전이었다.

그런데 基督教은 1890年 關西地方에서 適用하기 시작한 《네비우스 宣敎方法》에 의해서 이러한 意識化 活動을 社會的으로 遂行한 것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近代의 責任市民, 公知的 經濟的 中産層을 生成해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sup>28)</sup> 물론 예수敎 自體가 이미 <近代化의 傾向을 强하게 지녔던 自立的 中産層에 依해 受容><sup>29)</sup>된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고, 더구나 그 地方民들의 開放的이고 非保安的인 性格이 새로운 潮流의 思想을 흡수하는 데 機敏하고 또 身分的으로 社會進出의 기회가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兩班政治體別에서의 탈출을 열망하고 있었다는 그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여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地域의 下流層 庶民層을 西歐 基督教의 禁慾倫理에 의해서 敎育하고 訓練해서 責任市民으로 形成해 가며, 階層의 上向의 移動을 遂行해 나간 것이 바로 敎會였다. 이 《네비우스 方法》은 自立, 自給, 自立宣敎와 같은 강력한 自立的 主體意識을 社會 下流層과 근로층을 상대로 한 宣敎에서 복돋아 주었다. 이것이 곧바로 이들을 敎育하여 韓國的으로 틀을 잡게 한 후, 自立하고 貢獻하고 인도하는 個人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이제까지 없었던, 近代的인 意味의 市民, 곧 意識과 責任의 主體로 나라와 겨레에 關여하는 創造的인 人間像을 꾸며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上向의 階層移動의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基督教會였다. 이렇게 해서 形成된 中産層을 통하여 民族敎會의 政治的 참여가 體系化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土着的 信仰告白의 形成이 捉成되고, 다른 한편 民族産業의 강력한 意志가 表現되고 具體化되기로 하였던 것이다.<sup>30)</sup> 日帝下 民族産業의 마지막 敎두부는 실로 關西 基督敎者들의 고무와 메리야스工業에 제한되어 있었을 정도였다. 敎회가 韓國 近代化에 끼친 공헌을 여기서 또 하나 찾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基本的으로 人間尊嚴과 그 責任에 대한 福音의 빛에 의해서만 可能했던 것이다.

27) 독립신문, 1898年 12月 23日, 본설.

28) 여기 대한 分析의 研究로서는 李光麟, 開化期 關西地方과 改新敎 참조. 論文集, 第五輯, 第一篇, 人文, 社會科學, 崇田大學校, 1974

29) Ibid., p. 443

30) 趙機璿, 韓國企業家史. 서울. 博英社, 1973. pp. 305ff.

c.f. 拙書 韓國民族敎會形成史論.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4. pp. 223ff.

서울에서도 이런 意識化의 작업은 진행되었다. 곤당골의 賤民層이 그 衣裝의 身分的 표시를 제할 수 있게 했다거나.<sup>31)</sup> 尙洞系로 알려진 下流層 基督者들이 官紳社會의 信教之人들과 함께 YMCA 를 중심으로 해서 活動할 수 있었다는 것들이 그 현저한 몇 實例들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지방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은 市民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意識에의 자극, 倫理的 심각성의 자극에서 시작되었다고 봄이 마땅할 것이다. 教會가 皇帝(高宗)의 誕辰에 즈음하여 慶祝祈禱會를 처음 가진 것이 기록상으로는 1896年 9月 1일이었는데, 이들 會集의 意義에 대해서 《독립신문》은 대개 다음과 같은 分析을 내리고 있었다.

조선 님군과 曷성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혀 연설을 하여 이런 쇼전이 업던 사람들이 새 생각이 나게 말을 하여 들너 주고, 인국가를 지어 각교회 학교 학도들이 노력들을 하여,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어질고 착하고 의롭게 감동을 식히며……

이 대회가 조선 사람을 여러 가지를 마르치논거시 잇스니 첫저는 위국위민 하는 뜻시요. 돌저는 이런 마음이 잇스면 다만 마음에 먹어 들뿐이 아니라 세계에 광고하여 이런 마음 잇는 것들 알게 하며, 이런 마음 업는 사람을 잇도록 감동을 시키며, 셋저는 야소교를 하여 전국인민이 충등이 업시 모도 형제갓치 사랑하고 도와 주어, 나라히 잘 되여야 올코 곳은 풍속과 법률이 성하게 하며, 강하고 귀하고 부요하고 지혜잇는 사람이나 약하고 천하고 무식한 사람이나 하느님압헤는 다일반이라……

조선안에서……교회는 불상하고 어리석은 동포형제들을 모도 꿈을 세게하여 다만 성경만 말뿐이 아니라 엇더케 하여야 춤 올흔 曷성 되는법을 마르치논 거시 교 하는 직무로 우리는 생각하노라.<sup>32)</sup>

이에 의하며 나라나 임금에 대한 忠君愛國의 意識의 具體化와 倫理的 訓練, 正義의 俱現과 神賦의 自由平等의 理念,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世界에 대한 覺醒, 이런 것을 教會가 擔當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意識化作用의 擔當層은 확실히 教會에 의한 上向的 階層移動의 結果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 Ⅳ) 偶像破壞의 潛在力

近代의 市民形成의 動力에 의해서 身分制의 倫理를 克服할 수 잇었던 教會는 前述한 抗日的 國權論에서 새로운 次元의 강력한 潛在力을 行使할 수 잇었다. 그것이 포괄적이고도 核心的인 抗日의 民族倫理的 투쟁을 展開시킬 수 잇었던 源流的 에너지였다. 그것이 바로 偶像破壞의 潛在力에서 發露되었던 것이다. 그 事情은 이렇다.

日本은 1886年 明法憲法을 반포했는데 伊藤博文은 그 《起案의 大綱》에서, 歐洲의 憲政이 역사적으로 基督教의 機軸에 근거하였지만, 日本에서는 그 機軸이 바로 <皇室>에 있다고 선포하고, 따라서 곧장 基督教의 거부를 必然的인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 主權의 天皇 施恩論까지 겹쳐서, 自然, 基督教 信仰의 天賦人權論은 論理上 克服을 강요 당하지 않을 수

31) R.E. Shedrer, op.cit., p. 106

32) 독립신문, 데일린. 녹십호호 건양원년(1896) 9월 삼일. 논설.



없게 되었던 것이다. 1890년의 《教育勅語》는 이 倫理와 機軸의 展開 實踐의 보장 구실을 하였고, 日帝는 이 《대강》을 1908년의 統監府 〈私立學校令〉에서 實現하여, 基督教教育을 정면 위협했으며 基督教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 韓國 基督教과 日帝와의 대결은 불가피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日帝의 政治의 理念의 中核을 향해서 도전했던 韓國의 民族的 저항이 基督教에서 그 가장 原理的이고 銳利한 이데오로기로 해서 前無後無하게 具體化되었다 해서 결코 過言이 아니었다. 곧 天皇機軸의 體制에 偶像破壞의 막강한 信仰으로 도전하였다는 말이다. 이것은 創造者 攝理主宰의 唯一神論에서 비로소 可能하였던 것이다. 어떠한 政治의 體制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屈服하고 審判을 받아야 한다는 이 唯一神論의 偶像破壞의 力量 때문에 日帝는 1905년에 벌써 朝鮮統治의 最大 장애가 基督教이라는 사실을 公表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3)</sup> 실상 日本 基督教의 결정적 결합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러한 偶像破壞의 信仰力을 具有치 못하고 天皇制에 굴복하여 宣敎途上에서 심각하게 論議되는 바, 매관적 타이포로지에서, 상당 分量의 핵심적 根本信仰을 포기한 데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저 海老名彈正과 같은 이는 《神道の 基督教》를 제창하였을 정도였고, 따라서 日本 基督教은 天皇制에 포섭된 채 淸日, 露日 兩戰爭을 통해 스스로 反國家의 이 아님을 實證하기 위해 전쟁에 奉仕했을 뿐만 아니라, 露日戰爭(1905)에는 日本社會의 動搖 속에서 體制維新을 위해 協力하면서 天皇制 體系의 再建과 擁護을 위해 活動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問題는 體制의 〈宗教化〉에 있었다. 그것은 偶像이란 것이 韓國教會의 確信이었다. 朴鍾鴻은 民族主義 세미나에서 大衆에 침투하여 그들을 結束하여 어떤 志向的 動員에 자극할 수 있는 힘은 信仰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政治가 좀 이상한 表現이지만 宗教와 結탁할 수 있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다.<sup>34)</sup> 이러한 판단과 發想은 잘못하면 體制에 대한 宗教性 附與에 引導되기 쉽고, 따라서 偶像化될 수 있는 것이다. 韓國基督教의 전통적 偶像 파괴력의 계승은 그 民族教會史에서 榮光이요, 아울러 使命이다.

民族救援의 現實의 實現을 이처럼 基督教의 聖書의 福音에 의해서 期하던 찰나에, 소박한 聖書의 信仰에 대하여 科學的 解釋方法의 適用을 시도하며, 流行하던 新神學說을 自由採擇해야 한다는 新神學者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 注目할 만한 重大한 事實이 하나 있었다. 捕囚 民族救援의 메시아主義는 대개 그 비전이 모세五經, 特히 出埃及記와 申命記, 그리고 千年王國說의 비전이 그 典據를 뿌리 박고 있었다. 바빌론 捕囚에서의 歸鄉을 叙述한 歷史書나 豫言書들도 靈感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新神學者 金庄鎬는 하필이면 바로 이 二大 根幹에 대한 所謂 科學的 批判을 자행하여 紅海渡河를 干潮의 현상으로 合理化시킴으로써,<sup>35)</sup> 가공하게도 民族救援의 典據를 迷妄으로 霧散시키는 모역을 감행하였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

33) 日本公使館記錄, 1905年, pp. 69~70

34) 李用熙, 韓國民族主義, 盧左鳳編, 서울, 瑞文社, 1977. p. 197

35) 박성경, 황해노회 100회사, 황해노회 100회사 편찬위원회, 1971. p. 214

《朝鮮的 基督教》를 표방하면서 反宣教師의 感情을 충동하고 마침내 東洋的, 그래서 日本的 信仰의 樹立이라는 非에 흐르고 말았던 것이다. <我等은 絶對로 天賜하신 日本人으로 태어난 權利와 福音을 一層發揮><sup>36)</sup> 하여 《朝鮮基督敎會》를 창설한다는 것이었는데, 金庄鎬는 공공연하게 3.1運動의 <矛盾을 喝破하고……內鮮民族의 不可分을 主張>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37)</sup> 필경 그는 1922年 4月, 齊藤實 總督의 訪問까지 받았고, 1928년에는 御大典記念章까지 받은 일이 있었다.<sup>38)</sup> 韓國에서의 新神學이 처음 舊約聖書를 문제 삼고,<sup>39)</sup> 捕囚民族救援의 에너지 供給處를 <自由批判>의 美名으로 霧散시켰을 때, 朝鮮總督의 훈장수여는 지극히 당연하였다. 民族敎會史에서의 新神學의 위치가 이러하였다. 물론 그 자신의 親日意圖 有無 여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아니하였다.

#### V) 全國的인 自發的 民族組織體로서의 敎會

韓國의 機構的 敎會組織은 北監의 1905年の 宣教師年會, 南監의 1904年, 韓國 宣敎地方會, 그리고 長老敎의 1907年 獨老會, 1912年の 總會組織等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民族組織體로서의 基督敎會는 그 結合原理가 이러한 敎權的 構造原理와는 다르다는 立場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全國的인 民族의 組織體는 信仰을 통하여 自立한 個人, 그들의 人間的인요 市民的인 自覺 및 規律的인 禁慾的 生活態度, 새로운 正義의 歷史에 대한 확고한 希望, 그리고 救援에 대한 感謝의 生活과 같은 계기에 의하여, 그들을 系統的으로 分離해 념으로써 可能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少數였고, 그런 限度에 머물러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自治 自立에 알맞는 人格의 成長과 그들의 自立의 人間像을 창조함으로써 敎회는 市民社會를 향하여 민족을 이끌어 가는 組織體로서의 機能을 다할 수 있었다. 그때에는 共同目標을 지향하는 協會形成의 모든 結社나 集會가 禁止되고 있었다는 條件이 첩부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狀況이었으니 만큼 억눌린 民族의 에너지는 敎會를 매개로 해서 地表에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을 民族性의 강력한 性格은 가지고 있었지만, 基督敎의 世界性, 그것이 根本的인 保障이었음은 두 말할 것 없었다.

이것이 바로 敎會가 3.1運動 當時 전민족적인 蜂起의 據點이 될 수 있었던 素地였다. 傳統的인 社會의 構成 패턴과는 異質的인 敎會가 없었다면 이러한 全國的 規模의 蜂起는 가능하지가 아니 하였을 것이다. 3.1運動에 대해서 敎회가 기여한 面에 대해서는 그 世界史的 機運의 敏感한 포착이라든가, 意思表現 通路의 提供 및 그 理念의 言語化같은 德目を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敎會가 全國的 組織體였기 때문에 <動員>을 맡아 民家의 同時的 참여와 그

36) 朝鮮基督敎會小史, 同傳道部 發行, 1941. p. 15

37) Ibid., pp. 51, 58

38) Ibid., p. 60

39) 1930年代의 金在俊도 그러했다.

行動圈의 一律性을 指導할 수 있었다는 點이 그 歷史的 貢獻의 頂點이었다고 해서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被害에 있어서, 비록 數學的 精密性을 期할 길이 없다 하더라도, 그 現象的 記錄의 頻度에서 알 수 있듯이 基督教가 實質的인 人員 및 財産에서의 損害를 十中八九 받아야 했던 까닭이었다. 소요 진압자의 처지에서는 소위 <소요>의 핵심, 그 動員頂點에 대한 集中打로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戰略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었다.<sup>40)</sup> 곧 獨立宣言이

決非基督教會個體, 獨爲倡施也(했는데), 後日人以此爲撲滅教會之一機會, 首先囑後機關報, 指斥基督教爲邪教, 且謂獨立運動, 乃教會所主倡, 使憲兵警吏, 擔銃騎馬, 一如臨敵, 橫行各郡, 肆行虐殺, 少無顧忌, 其迫害之事實, ……死傷過十餘萬人, 拘繫於牢狴者, 爲三十餘萬人.

이러한 意味에서 당시 美國 教會協議會의 東洋問題委員會가 作成한 《The Korea Situation》 가운데에서 聲明한 다음과 같은 말은 그 正核을 찌르고 있었다.

예수교인의 이와 같은 迫力있는 行動과 意義있는 존재 양식이 없었더라면, 이 白衣가 호소하려고 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이념이 銃을 쏘듯이 전국에 무섭게 작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교인만이 참혹한 植民政策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唯一한 부류의 한국민이 올시다.<sup>41)</sup>

나라 상실한 겨레의 信仰心理에 작용한 이 有機的 所屬處 意識에서 希望의 불길이 타올라온 것은 당연하였다. <希望을 상실하지 않았던 唯一한 部類의 韓國人>! 당시 거리에 나붙은 激文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다. 곧,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과 밤에 기도하여 主日에 禁食합시다. ……

나의 겨레여, 우리 강토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木石이 아닙니다. 骨肉입니다. 외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먼 後孫은 自由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세.<sup>42)</sup>

#### Ⅳ. 狀況突破의 이데오로기 : 信仰의 外延力

《독립신문》은 1899年末에 벌써 東道西器 類型의 論理에 반발하고, 文明開化와 함께 그 西洋文明의 根基인 基督教의 內的 信仰을 受容해야 할 것을 주창한 일이 있었다. 곧,

근본 이치를 궁구하며 보지도 아니 하고 다만 태서 각국의 병기와 던보선과 전이기와 던기차와 화륜선과 우체법과 각항 기계는 취하여 쓰고져 하니, 이것은 그 근본은 바리고 솫만 취함이라. 나무 뿌리

40) 朴殷植, 韓國獨立運動血史, 上海, 1920. 上卷, p. 150

41) 이 貴重本은 白樂濬博士의 所藏本으로, 그 一部가 <三一運動秘史>로서 《基督教思想》 1966年度 1月~12月號에 連載.

42) F.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原版 London, 1920) Yonsei University Press, 1969. pp. 269~270

백양홀 생각을 아니하고 나무의 가지와 잎스귀만 무성하기를 바라니 실노 우스운지라.<sup>43)</sup>

이러한 생각은 1906년에 이르러 다시 굳혀졌다. 곧,

惟我大韓이……耶穌敎理는 目以西學而 不取하고 但取西人之兵과 與機械하야 設電話與語學하니 此는 不務其本而取其末이라.<sup>44)</sup>

그런데 이런 생각은 基督教이 民族的 에너지의 動員體制라든가, 民族解放이나 自立의 메시아主義的 갈망 俱現의 適格로 所任하는 사이에, 內的 信仰의 貧困에 시달리게 되는 矛盾을 지적하면서, 教會內 反省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 새 물결을 처음 主導한 것은 西洋宣敎師들이었지만 民族教會의 非歷史化나 非政治化라는 것이 目前的 動機는 아니었고, 그 때의 新聞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信仰源流에의 回歸라고 하는 순수한 意圖가 作用하고 있었다. 그러나 日帝도 韓國教會를 그 政治的 行態의 過熱을 憚란하며 入敎動機의 不純을 고발하는 식으로 교회의 非民族化를 단행하려 했을 때, 선교사들의 한국교회 入敎動機 分析결과와의 等式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韓國教會의 처지에서는 美國宣敎師群과 日帝와의 行動 同調를 우선 의심의 눈길로 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韓國基督敎會가 1921年을 피크로 反宣敎師의 감정을 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력이기도 하였다.

어쨌든 이런 動機에서 선교사들은 <韓日兩國民間의 惡化되어 가는 關係가 全國的인 舉事라도 指向하고 있음을 切實히 느끼고>,<sup>45)</sup> 韓國教會의 非政治機構化를 단행할 생각으로 <宣敎協議會>가 決議하였던 바 單一民族教會形成案을 폐기하는 한편,<sup>46)</sup> 그들이 본래 가지고 들어 왔던 敬虔主義的, 淸敎徒의 엄격 規律의 熱情的 信仰을 <復興>하려고 一大運動을 展開하였다. 그것이 1905年 元山에서 始作하여 1907年 平壤에서 成功하였던 <大復興會>이다. 이 復興會가 非信者에 대한 傳道運動이 아니고 信者에 대한 淨化運動이었다고 하는 점이 注目할 만하다. 民族主義系의 安昌浩가 여기 혹평을 가하고,<sup>47)</sup> 《大韓每日申報》가 《론돈 타임즈》에서까지도 계속 주목하며 보도하였던 1907年의 大復興에 一言半句의 언급이 없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 까닭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國家事情에 喪心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主님과의 個人的인 關係에><sup>48)</sup> 되돌아 오게하려는 努力이 沒歷史性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大復興은 民族教會 構形過程에서 重要的 特長 하나를 그 교회가 具有케 하는 決定的인 貢獻을 남겼던 것이다. 그것은 內燃의 信仰이 있고 나서 그것이 뿜어 나는 外延力에 의하여 확장되어 역사 속에 참여하는 이 절차 論理의 確立이었다. 그래서 결국 宗教와 倫理

43) 독립신문, 1899年 9月 12日字, <나라의 근본> 논설.

44) 崔炳憲, 宗教與政治之關係, 雜報, 大韓每日申報, 1906年 10月 9日字

45) 白樂濬, 韓國改新敎史,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3. p. 386

46) 여기 대해서는 拙書, 韓國民族敎會形成史論,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4, 第一章 참조.

47) 주요한, 安島山全書, 서울, 三中堂, 1971. p. 28

48) W.N. Blair, Gold in Korea. 3rd. ed., Presbyterian Church U.S.A., 1957. p. 64

에 우선 歸着해서, 거기서부터 새 價値體系를 이루고, 이 內的 變化에 의해 구질서와의 차질을 경험하면, 그 차이감에서 生成되는 에너지가 外延되어, 마침내 狀況突破의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그러한 高貴한 體質의 形成이었다.

韓國教會에서 宗教的 動機가 第一義의으로 構造力을 가지게 된 때가 바로 이 때였던 것이다. 그때 倫理的 變革을 同伴한 심각한 宗教的 回心이 教會全幅에 망라되어 <勢>를 떨쳐 갔고, 到處에 罪의 懺悔, 그리고 罪過의 痛悔가 現象的으로 퍼져 갔던 것이다. 이러한 宗教心理的 衝擊이 1907년의 哀切한 國情에 울먹이던 白衣의 悲嘆에 위로와 安息을 준다는, 그래서 이제 罪의 옛을 씻고 絶對者 앞에 서는 길밖에 없다는, 막다른 情景의 모습이기도 하였으리라. 그러나 그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제 信仰, 그 문이 열리고 民族教會의 靈的 次元이 構築되었던 것이다.

여기 深遠한 倫理的 變革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1907년의 國債報償運動이 제시한 <斷煙>의 호소와 그 志向이 같았다.<sup>49)</sup> 韓國社會의 道德的 淨化와 그 엄격성이 救援의 표징이라는 信仰의 倫理와 並行했다는 느낌이다.

我們이 作罪가 多함으로

天主의 使我亡로 他人權下의 鎖壓케 하겠스니 諸般惡行과 戲虐을 勿事하고 曖昧히 財産을 勿虛棄하며 以酒取亡하는 事가 無케 하며 無識한 行爲와 懶怠한 氣習을 다 拋却하며.....<sup>50)</sup>

또한 宣教師는 言明하였다. 곧,

우리는 教會가 이번 自服의 물결을 통하여 淨化되었고, 原罪意識이 確固하여졌고, 普遍화된 사랑의 精神으로 教會를 더 높은 水準에 오르게 한 줄로 믿는다. ....이번 復興時期는 많은 사람들이 그 信仰生活에 있어서 新生하는 機會였다.<sup>51)</sup>

다른 한 선교사는 이 부흥의 결과로서 信者들 사이의 義와 罪의 意識을 深化한 사실을 들고, 이제 教會는 罪의 심각성을 깨닫는 同時에 義에 살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平生 責任이 된다는 認識을 하게 되었다고 지적한 일도 있었다.<sup>52)</sup>

여기 信仰의 外延力이 현저히 눈에 띄게 된다. 독실한 신앙이 先行하면 그것이 한 에너지로 狀況突破力이 된다는 것이었다. 1906년의 著述로 알려지고 있는 矩堂 俞吉潁의 《查經會趣旨書》에도 이런 절차 論理가 현저히 의식되고 있다.

故로 我親愛하는 同胞兄弟姊妹는 提携하고 我救主의 宗門에 回歸하여 博愛至善한 道德의 感化로 無依

49) 國債報償期成會趣旨書. 大韓每日申報, 1907年 2月 27日字 雜報.

50) 大韓每日申報, 1905年 12月 9日字, 警告韓民.

51) North Presbyterian Report for 1908. p. 302

白樂潁, op. cit., pp. 393~4에서 引用.

52) 白樂潁, op. cit., p. 394

하던 靈魂을 振濟修練하여 清新하며……粹正崇敬烈호 篤確호 氣魄과 力量으로 國家의 衰運을 挽回하며 社會의 頹俗을 矯救하기로 上天에 訴하야……<sup>53)</sup>

1908년의 《大韓每日申報》역시 이 移行 절차의 論理를 重要視하고 있었다.

同胞는 舉皆教主를 篤信하야 一身의 罪와 一國의 罪를 贖호고 主恩을 感服하야 能히 救濟蒼生도 하리니 同胞를 愛호는 範圍가 此에 不外하니라.<sup>54)</sup>

뜨거운 信仰과 예민한 罪意識, 그리고 贖罪의 感激과 讚美, 그것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救濟蒼生의 터전이 마련되고 그 때 비로서 民族에 대한 참여의 범위가 열린다는, 이 論調는 1907년의 韓國教會 信仰運動의 內的 指向目標와 그 構造를 透視한 正見이오, 그 감격이었다. 이런 信仰이 바로 韓國民族教會의 正統으로 定着한 것이다.

이런 信仰構造가 웅장하게 示威된것이 1930年代 以後의 日帝下 最後抵抗이었던 神社參拜拒否에서 였다. 참배 거부한 이들의 大概는 엄격한 十戒命的 信仰과 千年王國說의 철저한 신봉자들이었다. 이들은 조직적인 民族主義的 抗拒란 염두에 두어 본 일도 없고, 解放後에도 이 點은 自認되었다.

그런데 日帝는 이들에게서 最後의 저항을 느꼈고, 그들 國體에 대한 도전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問題의 핵심이 있었다. 가장 保守的 信仰人群으로 一括되는 이들에게서 日帝가 저항의 <現象>을 보고, 역사 참여의 표어가 그 體質의 하나인 新神學者群에서는 오히려 모세五經과 千年王國說을 批判함으로써 <抵抗 現象論>의 中핵을 虛脫케 하는 一部 附逆群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點이 看過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령 日帝는 金滄樂에 대한 豫審終結書에서 이런 말을 한다.

日本帝國의 國體變革을 必然 招來할 그리스도 再臨後 千年玉國 實現을 妄信冀望하여, 이 建設에 協力하기 위하여 神社參拜 等 反戒命政策에 反對하고 그 獨善的 聖經觀에 基本한 主義思想 宣明에 努力……<sup>55)</sup>

여기서 <必然>이란 말의 배후가 얼마나 강력하게 풍기는지 이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日帝는 李基宣에 대한 예심 中에서 그가 <聖經을 끝까지 眞理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獨善으로 定罪하고, 그의 罪目을 아래와 같이 장황하게 흐려 놓았다.

여호와 神은 天地萬物을 創造하고 또한 支配統括하는 最高唯一絕對의 全知全能의 神이라 하는 反面에 다른 神이라고 칭하는 것은 모두가 僞神 乃至 偶像이라고 速斷하여 天照大神을 爲始하여 歷代天皇은 여호와 神의 被造物인 아담 하와의 子孫으로 畢竟 不完全한 人間에 不過하여……이를 祭祀禮拜하는 것 같은 것은 모세 十戒命中에 所謂 他神崇拜 或은 偶像崇拜로 最大한 戒命違反 行爲라고 하여 이를

53) 兪吉滄全書, II卷, 서울, 一潮閣, p. 403

54) 1908年 3月 10日字

55) 안용준, 태양신과 싸운 이들, 서울, 세종문화사, 1972. 부록. p 274

全面的으로 否定하고…….

我肇國以來的 國家觀念 國民感情을 擾亂시켜 現存秩序의 混亂動搖를 誘發하면서 窮極에 있어서 現秩序를 崩壞하여 萬世一系の 天皇이 다스리는 我日本帝國 國體變革까지도 必然 招來할 基督獨裁의 所謂 千年王國 建設을 實現시키도록 冀望……. 56)

이 終結書의 文章構成의 渾연과 그 長文의 애매성과 더구나 神學의 語義의 심각한 沒知識을 차치하고라도, 여기 聖經에의 密着과 十戒令, 千年王國說이 이들 日帝에게 治安混亂과 國體變革에 까지 <비쳐진>, 이 <現象>에 우리의 關心이 기운다. 內燃的 信仰의 外延力, 그래서 狀況突破力으로서의 이데오로의 所任이 바로 이것이라는 납득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側面은 內燃的 信仰은 그것 그대로 <現存>할 때에도 敵對的 相對方에게는 力學上 도전하게 된다는 막강한 <勢>로 作用한다는 사실이다. 저쪽에서 느끼게 되어 있는 이쪽의 <現存>, 그것이 참 信仰의 構造라는 正統이 우리 民族教會史에 세워진 남다른 遺産인 것이다.

## V. 解放後의 基督教會

解放된 教會는 1945년부터 65年, 20年 사이에 별다른 表面上의 기복이 없었다. 그 內的인 감격과 自省, 그리고 終末論的 信仰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낸 인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어느 때보다도 素朴한 信仰에 머물러 있었음이 사실이다. 물론 일부의 政治 편승이 없지 아니 하였으나, 그것은 初期와 마찬가지로 本來 意圖가 民族主義 運動으로 入教하였던 機會主義者들의 자연도태라는 현상으로 이해함이 더욱 妥當할 것이다.

한데 1965년부터는 事情이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教會는 그 變轉에 敏感하였다. 教會는 體制에서 漸次 소외되어 간다는 사실을 自覺하기 시작하였고, 在來宗教가 民族文化의 再興이라는 거대한 슬로강 아래서 커다란 비호를 받으며 쫓는 모습을 응시하게 되었다. 이때 어떤 民族的, 民衆的 動力의 좌절된 표현에 끌리는 革新系의 神學者群과 一部 教會人群에 의해서 다시 庶民運動의 한 範疇的通路로 教會가 썩워지고 있다는 위험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階層心理에 강하게 호소하는 憎惡의 멘탈리티가 깊이 젖어 있었고, 그 과격한 투쟁 방법은 黑白 200年의 비참한 역사에서 삶의 깊숙한 바탕에 깔려 이제 그 審判이 불가피한 <異邦>의 情況에서 方法論을 그대로 導入하는 誤가 있었다. 이런 데까지 이르게 한 神學史의 이해의 正直을 다한다면, 이 저항적 기독교의 모습은 外來的, 沒民族史的 錯誤인 것을 看取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들의 論理대로 한다면 4.19 以前의 政教密月期에 오히려 투쟁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教會를 저항적 기독교로 환원시켜서 좌절된 심리의 거친 表現에 動員하려는 企圖를 民族教會史에 대한 一大 도전으로 받아

56) Ibid., pp. 256~7

들어야만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主體的 歷史의 무대 위에 서 있고, 따라서 앞장 서서 창조적인 이념과 지도 원리를 民族을 위해 제시하고 이끄는, 보다 積極的인 자세로 임해야 할 때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 Ⅵ. 結 言

우리는 수 많은 問題들을 未接하고 이 글을 맺게 되었다. 宣教師와의 關係에서 따로 처리해야 했던 民族教會의 形成의 산적한 문제에 대한 不扱이 그 하나요, 機構的 民族教會 確立過程의 不及이 역시 다른 하나이다. 그리고 여러 형태, 특히 宗派的 形態에서 民族教會論을 反教權의 構圖에서 俱現코자 했던 몇몇 雄大한 企圖들도 여기 다루지 못한 것, 역시 아쉽기 그지 없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의 部分的 研究는 筆者의 다룬 拙書들 속에 이미 공여되고 있다고 보아,<sup>57)</sup> 거기서 소홀했던 문제의 置重을 여기서 대신하려고 하였더니 이런 未及에 이르고 만 것이다.

韓國의 基督教會, 그것을 近代韓國의 形成에 있어서 高次的 構成力을 발휘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民族教會로 構形되어 갈 수가 있었고, 그 나름대로의 神學도 構成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形成期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러한 조명 아래에서 다른 시기의 교회도 연결하여 그 因果를 검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밝혀진 것이 몇가지 있었다. 韓國의 教會는 1876年 民族教會로 그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였으며, 朝鮮末 宗教의 信仰의 空白期와 傳統文化의 쇠퇴기에 그것을 넘치게 채워주며, 한편 文化主體意識을 자극하여 그 발굴과 계승, 그래서 궁지로 이끌어 간 공로를 남겼다. 그리고는 社會階層의 上向의 移動을 遂行하여 近代의 責任市民을 形成하고, 官紳社會에서는 意識化의 格류를 물게함으로써 社會運動의 커다란 酵素로 기운을 뿜어 낼 수 있었다. 이런 것이 基調가 되어서 民族의 前進的 同一性을 確保하여 新鮮한 信仰倫理를 經路로 한 새 價値體系와 그 에너지로 狀況突破의 이데오로기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 民族教會 成立은 日帝의 侵略史와 묘하게 중첩하고, 바로 그러기에 民族 에너지의 動員體制로 굳혀진 내력을 가지지만 捕囚民族解放의 메시아主義의 비전으로 民族的 좌절의 위기에서 救援과 現實的 解放을 期約하는 希望의 선포자로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 이것은 教會가 全國의인 最初의 近代의 自立 組織體였다는 다른 하나의 거대한 現存 양식 때문에 可能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根本的인 遺産은 이 모든 에너지가 內燃的 信仰의 先行 構成 以後의 단계에서 力學上 外延된다는 이 移行過程의 必然性에 그 궁극적 構造原理를 두었기라는 點이

57) 韓國民族教會形成史論. (1974), 한국의 기독교(1975) 등 참조.



다. 한 人間, 한 教會가 경건한 宗教的 敬虔에 깊이 젖어 그의 불타는 信仰이 그의 人稟에 工夫 퍼져서 外延되게 될 때, 세상도 교회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變化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 傳統이다.